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205

2014년 2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고등학생의 미술관심도에 따른 정서지능과 수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모 상 희

고등학생의 미술관심도에 따른 정서지능과 수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An Effect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ass Satisfaction through Art Education Interest of High School Students

2014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모 상 희

고등학생의 미술관심도에 따른 정서지능과 수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상 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3 년 10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모 상 희

모상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조 윤 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홍 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상 호	인

2013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Ⅶ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 5

제2장 이론적 배경 ····· 7

제1절 미술교육 ····· 7

1. 미술교육의 개념 ····· 7

2. 미술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 8

3. 현대미술교육의 개념의 변화 ····· 11

제2절 정서지능 ····· 15

1. 정서지능의 개념 ····· 15

2. 정서지능의 구성요소 ····· 18

3. 정서지능과 미술프로그램 ····· 21

제3장 연구방법 ····· 23
제1절 연구대상 및 가설의 설정 ····· 23
1. 연구모형의 설계 ····· 23
2. 가설의 설정 ····· 24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 25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 25
2. 미술수업태도 ····· 26
3. 정서지능 ····· 27
4. 미술수업 만족 ····· 28
제3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 29
1. 자료의 수집 ····· 29
2. 분석방법 ····· 29

제4장 실증분석 ····· 31
제1절 기초자료분석 ····· 31
1. 표본의 특성 ····· 31
2. 표본의 미술 및 미술수업에 대한 일반적 특성 ····· 33
3. 표본의 미술관 관람 특성 ····· 36
제2절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 40

1.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 40
2. 전체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 45
제3절 가설의 검증 ····· 46
1. 연구가설의 검증 ····· 46

제5장 결론 및 제언 ····· 53

참고문헌 ····· 55
부 록 ····· 58

표 목 차

<표-1> 정서지능의 3영역 16요소 모형 ····· 18
<표-2> 정서지능의 4영역 4수준 16요소 모형 ····· 19
<표-3>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 32
<표-4> 표본의 미술 및 미술수업에 대한 일반적 특성 1 ····· 33
<표-5> 표본의 미술 및 미술수업에 대한 일반적 특성 2 ····· 34
<표-6> 표본의 미술 및 미술수업에 대한 일반적 특성 3 ····· 35
<표-7> 표본의 미술관 관람 특성 1 ····· 36
<표-8> 표본의 미술관 관람 특성 2 ····· 37
<표-9> 표본의 미술관 관람 특성 3 ····· 38
<표-10> 표본의 미술관 관람 특성 4 ····· 39
<표-11> 미술에 대한 관심도 및 미술대회 참가경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 41
<표-12> 정서지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 43
<표-13> 전체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 44
<표-14> 상관관계 분석결과 ····· 45
<표-15> 미술에 대한 관심도 및 미술대회 참가경험이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47
<표-16> 미술수업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감상활동의 회귀분석 ····· 48
<표-17> 미술수업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체험활동의 회귀분석 ····· 49

<표-18> 수업유형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분석 ····· 50
<표-19> 미술에 대한 태도가 미술수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 51
<표-20> 연구가설의 종합 ····· 52

그 림 목 차

〔그림-1〕 연구모형 ····· 21

ABSTRACT

An Effect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ass Satisfaction through Art Education Interest of High School Students

Mo Sang -hee
Advisor : Prof. Sang-ho Park, Ph.D.
Major in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oday, a variety of art-related activities through art education experience develop aesthetic emotion and perspective, and also play a big role in fostering creative, harmonious and well-rounded human beings that the future society requires, so that it is thought that art educ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to investigate empirically how high school students' interest in art and attitude in art classes affect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ass satisfaction, distributed a total of 230 questionnaires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rom a final analysis of a totla of 200, except for the insufficient ones.

Studie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s are followed; for age, the

17-years-old counts 147(73.5%); and for monthly allowance, over 30,000 and under 50,000 won reached 81 (41.5%) which is the highest .

Second,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for the sample's general characteristics in art and art classes, 81 of the samples (42.5%) replied that interest in art classes is average; and 74 (37.0%) replied that attention in art itself is also average. In addition, 74 people (37.5%) replied the average hour of art classes is one hour; 114 (57.0%) replied the favorite art-related activities are experiential ones; 55 (27.5%) replied the favorite area in the art field is design; and 123 respondents (61.5%), showing the highest distribution, replied that the art-related activities are dealt with only in school classes. These percentages confirm that the art class for high school students typically is done only in the class participation.

Thir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visiting an art museum, 80 subjects (40.0%) replied they had visited the museum 1-2 times; 64 (32.0%) replied their companion is a friend; 73 (36.5%) replied motivation for watching is out of school projects; and 80 (40.0%) replied they usually read or listen all the descriptions of a work of art when visiting the museum. The most desired field in art through the museum viewing experience is the Korean painting, 40 people (20.0%) answered; the art subject to try is nature, 37 (19.0%) replied; and 41 samples responded that they want to use a pencil for practical expressions, which shows the highest ratio.

Conclusions on hypothesis testing are as follows:

First, after verifying the impact on the attitude toward art classes by interest in art and experiences in art contests, it turns out that both the

interest in art (β = .478, t = 7.220, p <.001) and the experiences in art contests (β = .267, t = 3.608, p <.001)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attitude.

Second, in the impact on emotional intelligence by the attitude in art classes, it appears that the attitude toward appreciation activitie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motional regulation only in the emotional intelligence. Also, the one toward experiential activities affects meaningfully only emotional expression, which shows distinction of effect from the appreciation activities and of the class form only in emotional regulation.

Third, the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 of the attitude on satisfaction in art classes shows that the attitude toward are classes affects positively the art classes satisfaction (β = .604, t = 11.740, p <.00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의 주입식 교육 현실에서 미술교육은 감성을 중요시 하는 교과목 중 하나로 감성은 학생들의 미적경험을 통하여 길러지며, 미술교육은 학생들에게 미적 안목과 조형능력 및 심미적 감상력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창의력, 비판적 사고를 길러 학생들이 미술을 이해하고 계승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 또한 미술교육은 학생들의 소질과 창조, 창의성을 계발함으로써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게 한다[2].

오늘날 미술교육을 통한 다양한 미술관련 활동 경험은 미적 안목과 미적 정서를 기르게 하고, 미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 미술교육이 점점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다[3].

미술교육은 크게 학교 이외의 미술교육활동과 학교에서의 미술교육과정인 미술과 교육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협의적 의미의 미술교육이란 미술과 교육은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습자에게 행해지는 교육을 일컫는다. 학교외의 미술교육활동이란 교과적 미술

---

1) 이소정, “창의력 향상을 위한 한국화의 활용방안 연구: 미술영역 내 통합수업중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1-3.

2) 이문경, “ICT를 활용한 미술 감상 수업이 예술계 고등학생들의 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2.

3) 조은영, “미술관교육과 학교미술수업 연계방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1-3.

형태는 아닌 계속적으로 실천되지는 않지만 어느 장소에서든 미술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의 광의적 의미를 뜻한다. 이에 현대에는 미술의 개념 확장으로 미술의 폭은 더욱 넓어지고 표현력 이외에도 창의성, 개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이 전개되어지고 있다. 최근 미술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미술교과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술교육의 최종 목적인 전인간적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술교육 또는 미술수업 현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기라고 하는 고등학생 시기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낼 뿐만 아니라 수업과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많고, 입시위주의 교육, 사교육 열풍으로 인해 개인의 적성, 능력과 개성을 존중하기 보다는 교과학습 중심의 수업이 많아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각적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데, 미술교육에서도 정서적 안정을 위한 기존의 수업식 교육 외에 다양한 교육활동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활동인 감상활동, 체험활동, 표현활동 등이 이에 속한다. 프로그램 중 하나인 감상교육은 감상이 대상의 미적 가치를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므로써 표현되는 내면화 과정이라고 할 때, 감상지도는 학생들에게 미적 대상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학생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감상지도를 통하여 미적 대상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미술에 대한 이해와 평가하는 능력을 육성하게 된다면 환경과 미술문화를 애호하고 창달하려는 태도를 기를 뿐 아니라 결국에는 미술교육의 목적 중 조형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정서적 교육과도 많은 관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4].

대표적인 수업활동을 제외한 활동 중 하나가 체험활동인 미술관 체험으로 청소년에게 크게 3가지의 교육적 효과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첫째, 미술관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미적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학습방식으로 다양한 감각을 길러

4) 백중열, “초등미술교육에 있어서 감상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11(1), 1991) pp.147-168.

줄 뿐 아니라 경험을 제공하고 비판적인 생각과 태도를 개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5]. 둘째, 청소년들이 미술관에서 경험하거나 체험한 학습은 단순한 지식 습득의 개념을 넘어서 환경과의 열린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습경험이기 때문에 미술관 체험은 복합적이고 전인적인 성장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6]. 셋째, 청소년은 미술관 체험을 통해 총체적인 미술관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 체험을 통하여 다양한 범위의 개념 확장 및 미적 안목이 육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7]. 이에 미술 교과적 수업과 함께 미술 감상, 미술관 교육 및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잦은 노출을 통하여 학교 미술과 감상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미술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미술교육전공 학위논문과 제7차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김하연, 2008), 교육대학원 미술전공 교과과정에 대한 비교연구(최은성, 2003), 제7차 교육과정 미술교과서 구성과 감상에 관한 연구(홍진영, 2003),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미술교과서 분석(정선민, 2010) 등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미술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미술관과 학교 미술교육 연계 프로그램 연구(이경진, 2005), 미술관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장은미, 2006), 미술관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실태연구(손지영, 2005), 평생학습을 위한 미술체험 프로그램 연구(강지영, 2008), 미술의 이해를 중심으로 함 미술학습 프로그램 개발(강선모, 2000) 등이 있었다.

그리고 미술과 연계된 정서지능과 관련된 연구로는 미술활동을 통한 유아의 정서지능 연구(정현경, 2006),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교과 통합적 접근이 정서지능에

5) 최희, "미술관과 학교미술교육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 7-8.

6) Liebert, U., “독일에서의 뮤지엄 교육현황”, (한국조형교육학회, 1992), pp. 185-188.

7) 김은영, “박물관 체험향상을 위한 해석지능의 확장”, (한국조형교육학회, 1991), pp. 185-188.

미치는 영향(최영경, 2012), 협동학습에 기초한 미술 감상 활동이 유아의 미술 표상 능력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김영자, 2007), ADHD아동의 정서지능 향상과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신체활동을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정수지, 201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보육시설 청소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하은정, 2006), 명화감상 활동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박지현, 2009) 등 유아의 정서지능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 졌을 뿐 고등학생들의 미술관심도나 미술수업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수업과 정서지능과 수업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첫째, 미술수업에 특성 및 미술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도와 미술대회 참가경험이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둘째,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형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미술수업 유형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이끄는지를 검증하고, 아울러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가 만족을 이끄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오늘날 모든 교육은 정서, 창의, 인성교육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교육이 미술교육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와 함께 감상활동 및 체험활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교육이 정서지능과 미술수업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인문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술수업에 특성 및 미술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도와 미술대회 참가경험이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후속하여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형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미술수업 유형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이끄는지를 검증하고 아울러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가 만족을 이끄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살보이와 메이어(Salvoey & Mayer)[8]가 제시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론적 배경으로 미술교육의 개념을 연구 분석하고 이에 따른 미술교육의 필요성과 미술교육의 목적에 대해 연구 분석한다. 또한 현대 미술 교육의 개념에 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둘째는 전인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정서지능의 개념과 중요성을 학자들의 주장

8) Mayer, J. D and Salovey, P.,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Salovey, & D.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cations for Educators. New York: Basic Book.(1997)

과 문헌 연구자를 통해 분석한다. 정서지능에 대한 빠른 이해를 위해 정서 지능의 구성요소, 그리고 정서 지능과 관련된 미술 프로그램을 조사 연구한다.

셋째는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선정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논리를 제시하며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연구방법을 이해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미술 교육

1. 미술교육의 개념

미술교육은 미술을 가르치는 교과이며, 미술과 교육이 융합된 학문이다. 다시 말해 미술의 본질에 교육의 본질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미술교육의 미술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는 없지만 사전적인 개념은 “일정한 세계상과 인간상을 미적 또는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예술”로 보고 있어 이러한 사전적인 미술의 개념이 교육활동과 접목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미술교육이라 할 수 있다[9]. 미술교육의 일반적 의미로서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치로 이끌어 내면서 미술을 포함시켜 인간의 내면을 시각적 측면, 조형적 측면, 공간적 측면으로 표현해내고 이해시키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인간의가능성을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되도록 돕는 교육”이다[10]. 또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아표현의 방식을 언어적 방법이 아닌 비언어적 방법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며, 개성과 창의성,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자극하고 부여함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9) 이은혜, “중등학교 미술교육의 새방향 모색: 미술개념의 확장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4-5.

10) 심봉경, “미술교육의 표현기법을 통한 정서지능 효과연구”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원 논문, 2011), pp.6-7.

2. 미술교육 목적과 필요성

미술교육은 인간에 내제되어 있는 기본욕구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격 형성의 기본적 욕구이며 누구나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우리의 교육에서 미술이란 교과목은 빠질 수 없는 항목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기존의 소수만을 위한 형태의 예술에서 대중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11].

이러한 미술교육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하여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조형능력의 개발, 둘째는 미적 안목의 육성, 셋째는 창의성 함양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조형능력은 어떤 형태를 읽어내고, 그려내고, 만들어 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주변 환경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미적안목의 육성은 다양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경험하면서 심미안을 키워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미술 작품의 감상 및 활동은 미술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창의성 함양은 개개인에게 유연한 사고의 전환을 갖도록 함으로써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낼 수 있는 말한다.

따라서 미술교육의 목표 또는 목적을 이 세 가지로 다 함축할 순 없지만 본능에 가까운 미술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복잡한 매커니즘으로 작용함에 따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미술에 대한 교육은 학교라는 제한적 공간에 한정시켜 버리면 그 목적의 달성뿐만 아니라 필요성에 있어서도 더욱 단순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11) 심진관, “공교육과 사교육에서의 미술교육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 3-5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학교에서의 미술교육은 이론적 지식과 실기적 능력만을 편중하는 경향에 치우쳐 있고, 입시위주의 환경에서 학생들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져 있다. 대부분의 학교 교과는 언어적, 개념적, 수리적은 능력을 긴장하는 좌뇌적 성향이 강하고 그에 반해 미술은 좌뇌, 우뇌의 균형적 발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술교육은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미술을 보고 때로는 즐겁고, 감동스럽고, 무섭기도 하며, 흥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분노하기도 하는 다양한 정서적 감정을 느낄 수 있어 학생들에게는 정서적 함양을 위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즉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함으로써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므로서 미술문화와 활동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문화의 창조와 발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이에 미술교과교육은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써 대상을 이해하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며 심미적 태도와 표현력, 창의성, 상상력,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다. 따라서 미술이 다양한 체험과 경험, 표현과 감상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함으로써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할 수 있다[12].

제 7차 교육 과정에 따르면 미술교육에서는 3가지 사항을 추구한다. 첫째는 생활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며, 미술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동기유발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를 북돋워줌으로써 주제,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활동과 능동적인 표현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는 것이다. 셋째는 미술작품에 대

12) 김소연(2009), “ Vitor Lowenfelf의 창의적 미술교육연구: 한국 미술교육과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2-34.

한 개인적 반응이나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창의적인 것과 동시에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전통 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서 미술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13]. 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술교육의 총괄목표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능력을 양성하고, 창의성을 개발 할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둘째는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셋째는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히 입시위주의 고등학생들에게의 미술의 관심, 미술 감상, 미술프로그램의 참여, 다양한 체험활동은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13) 교육인적자원부(1998), 「미술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 p.28.

3. 현대 미술교육의 개념의 변화

우리나라 현대 미술교육은 1970년대 전까지 기능중심의 미술교육 위주로 되어 있다가 1970년부터 1990년대 까지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해 중심과 시각 중심의 미술교육이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미술교육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능중심의 미술교육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고, 미술교사들의 인식적 측면에서는 창의성 중심 교육이 차지하고 있다[14].

현대의 패러다임의 변화 중심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문예학 분야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건축분야로 확산되고 이어 미술사의 새로운 조류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15].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포스트(Post)는 학자마다 해석은 다양한데, ~이후(after), 반(anti), 넘어선(beyond)의 세가지 의미로 사용되듯 이해하는 입장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미 확정된 의미를 지닌 현상이 아닌 지금도 형성되고 있는 불확정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적 세계관은 미술교육에 영향을 주어 기존의 지배적 교육개념에서 새로운 미술교육의 개념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다양성과 탈경계성, 소통을 지향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시각문화'로 거듭나고 있다[16].

과거 20세기 미술교육은 조형요소와 원리를 중시하는 형식론적 입장에서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미술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실제적 생활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현상을 보는 시각을 배제하고 오직 작품자체의 감각적,

---

14) 황연정,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미술감상 교육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2-3.

15)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서울 : 살림, 2003), p.7.

16) 조성은, "DBAE이론에 기초한 미술수업이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p.1-2.

형태에만 치중한 미술작품 형식 그 자체에만 치중하는 모더니즘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17]. 미술교육에 있어 상호작용을 배제한 창의성 중심은 현대 미술교육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종래의 미술이 소수의 미술 전문가나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었다면 현대미술은 과학 기술의 발달과 문화적 관심의 증대라는 시대적 화두아래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대 미술은 순수미술보다는 미술을 통하여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미술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어 미술의 영역은 확대되고 미술가에 대한 시각, 미술 감상자 역할에 대한 시각, 작품을 보는 시각 등 미술의 제 개념들이 변화하고 있다.

미술교육의 접근 방식은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을 겪어왔으며 분류해 본다면 표현기능중심의 미술에서 창의성 중심으로 그리고 이해중심의 미술교육으로 발전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18].

표현기능 중심의 미술교육은 18세기 중엽 영국중심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에서 영향을 받은 사상에서 비롯된다.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대량 생산된 물품들의 미적 수준의 약화로 인해 산업에 미술을 도입하려는 사회적 요청이 일기 시작하면서 교육에 있어서 미술을 가르치므로써 표현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미술가를 양성하자는 표현기능 중심의 미술교육이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표현기능 중심의 미술교육은 미술지도에 있어 학습자의 특성이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학생들을 도구적 시각으로 봄에 따라 미술작품이나 제품 생산을 위한 일종의 매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대두되었다.

이에 미술교육의 관심이 점차 옮겨가면서 1920년대 듀이(Dewey)의 진보주의적

17) 손혜원, “미술수업에서 맥락주의적 접근 방법을 통한 사회문화 현상이해교육” ,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 4-5.

18) 오수연(2002), 미술의 이해에 기초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워석사학위논문, pp. 7-10.

교육이론이 미술교육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미술교육은 아동의 흥미에 대한 관심 즉 아동중심으로, 지도나 간섭의 배제인 과정중심으로 그리고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도구적 미술을 강조하는 창의성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다른 교과와의 연결을 중시하는 통합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기능중심의 미술교육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으로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미술을 통한 창의성의 육성을 원칙으로 한 점을 특징으로 한다. 학생들의 창의성 발달과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교육이 이루어져야 미술은 재미있으며 쉽고 자연스럽게 습득된다고 본다는 교육사상은 1940년대 60년대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일반학생보다는 미술에 소질이 있고 관심이 있는 소수학생 중심의 교육방법으로서 창작활동이 우선하면서 미술사나 미술감상 같은 측면은 소홀히 다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새로운 미술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미술교과도 구조화된 학문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렇듯 미술교과의 본질적인 가치에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시작된 이론이 이해중심 미술교육이다.

이해중심의 미술교육에서는 독창적인 시각적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획득하게 할 수 있으며, 개인의 독립성과 자신감을 충전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이해중심의 미술교육은 기존의 창의성 중심의 미술교육이 지나치게 표현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미술자체에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전제하에 미술의 독자성, 미술 이해 및 감상교육, 교육과정과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술교육과는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표현기능을 기르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단순한 도구로서의 미술에서 고유한 하나의 교과목 영역으로 본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따라서 이해중심 미술교육은 미술자체의 학문적 가치를 중시하고 시각적 형태의 특징과 주제, 작가의 의도와 재료의 선택 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중용시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계획된 교육과정과 교사의 체계적인 지도가 중요시 되고 있다.

미술교육의 이러한 흐름의 변화는 미술교과가 독립된 그 자체의 의미를 줄 뿐만 아니라 내면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문화의 한 영역으로서 미술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방향으로 전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다양한 변화에 맞추어 생활 속에서 미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폭넓은 교육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미술교육에 접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2절 정서지능

1. 정서지능의 개념

미술교육은 전인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인교육의 사전적 의미로 전(全)자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차이는 있으나, 온전함을 의미하며 갖출 것을 고루 갖추는 것 다시 말해 원만한 인격체 즉 지·정·의가 조화롭게 통합된 인간을 의미한다[19]. 그러나 현실 즉 급변하는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사회적 문제들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통적 학문중심주의의 인지능력을 나타내는 IQ가 인간의 능력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이면서 그 대안으로 감정, 감성, 정서, 또는 감성지능, 정서지수 등의 단어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사전적 의미로 감정, 감성, 정서, 또는 감성지능, 정서지수를 살펴보면 감정이란 신체의 생리적, 행동적, 정신적 요소가 동반된 신체 모든 기관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쾌, 불쾌, 행복감이 주로 표현된다[20]. 감성의 사전적 의미는 자극에 대하여 느낌이 일어나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주로 두렵다거나 쓸쓸하다 로 표현된다. 또한 정서는 사전적 의미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란 뜻으로 감성, 감성, 정서는 비슷한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IQ라는 지수가 한계를 보이면서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라는 척도가 새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21].

---

19) 서장원,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초등체육에의 통합적 접근 : 서사적 관점에 근거한 하나로 수업적용”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11-12.

20) 최재은, “인간의 감정에 관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 4-5.

21) 나우누리, “감성지능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p. 12-13.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는 감성과 지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개념으로 인간의 내적인 지능과 외적인 지능 그리고는 인간상호적 지능이라는 용어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조절하며 동기를 유발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감정 이입을 통하여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키는 능력을 이야기 한다[22]. 정서지능이란 용어는 1990년 미국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보이(Salvoey)와 뉴햄프셔대학의 심리학자인 메이어(Mayer)[23]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이끄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24]. 이들은 다양한 인지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서적 정보가 개입되고 인지적 정보와 다르게 처리되고 정서적 정보를 다루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정서지능의 개념을 만들었다.

정서지능은 살보이와 메이어(Salvoey & Mayer)에 앞서 1924년 손다이크(Thorndike)에 의해 "사회적 지능"이라는 용어로 비슷한 개념으로 처음 알리게 되었다. 이는 다른 유형의 지능과는 다른 지능으로 구분하여 사회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내부 상태, 동기, 행동을 인식하고, 그 정보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25]. 이후 1980년대부터 정서가 인간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으로 인식되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가드너(Gardener)(1983)은[26] 다중지능이론요인 중 내적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과 대인관계 지능(interpersonmal

---

22) 정강윤, "무용교육 경험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5-6.

23) Mayer, J. D and Salovey, P.,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Salovey, & D.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cations for Educators. , (New York: Basic Book, 1997).

24) 곽이랑, "다중지능, 정서지능 및 학문적 자아개념의 관계연구" ,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p.17-20.

25) 곽윤정,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p. 21-23.

26) Gardener, H.,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 (N.Y: basic Books, 이경희(역), 마음의 틀, 서울 : 문음사, 1983)

intellogence)을 포함한 개인지능(personal intelligence)을 포함시켜 정서지능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용린(1997)이 선행연구자들의 정의를 토대로 정서지능을 이성의 발휘, 제한, 억압과 관련된 감성능력, 좌절 상황에서도 희망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 자신의 감정과 충동의 절제 및 통제능력, 감수성, 인내심 등 자시의 감정을 올바르게 통제하고 활성화 시키는 능력이라고 보기도 하였다[27].

1990년대 중반부터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어 EQ(Emotional Quotient)로 감정지수, 감정지수 또는 정서지수로 표현되면 일반지능의 표현인 IQ에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감성지능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영역이 포함되는지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자마다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긴 하나 감성지능, 정서지능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습과 동기 및 통제력, 자아 존중감, 자아개념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서 긍정적으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27) 안미숙,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 정서지능의 구성요소

살보이와 메이어(Salvoey & Mayer)(1990)는 정서지능 초기모형에서 3가지 능력인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정서를 적응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크게 나누고, 하위요인으로는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표-1>.

<표-1> 정서지능의 3영역 16요소 모형[28)]

영역	수준
영역Ⅰ 정서의 인식과 표현	[요소 1] 자기 정서의 언어적 인식과 표현 [요소 2] 자기정서의 비언어적 인식과 표현 [요소 3] 타인 정서의 비언어적 인식과 표현 [요소 4] 감정이입
영역 Ⅱ 정서의 조절	[요소 5] 자기의 정서조절 [요소 6] 타인의 정서조절
영역Ⅲ 정서 활용	[요소 1] 융통성 있는 계획 세우기 [요소 2] 창조적 사고 [요소 3] 주의집중의 전환 [요소 4] 동기화

그러나 3영역 10요소를 절충한 수준에 그쳐 신빙성이 부족하고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들 또한 정서의 인식과 조절능력이 포함되어 있으나 감정에 대한 사고 능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완성도 높은 구성요소라 할 수 없다 하여 1997년 <표-2>과 같이 각 영역을 4영역으로 하위수준을 두어 4영역, 4수준으로 전체 16요소를 제시한바 있다.

28) 김연민,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5.

<표-2> 정서지능의 4영역 4수준 16요소 모형[29)]

영역	수준
영역 Ⅰ 정서의 인식과 표현	[수준 1]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기 [수준 2] 타인의 정서 이해하기 [수준 3] 정서를 정확히 표현하고 그 정서와 관련된 욕구를 표현하기 [수준 4] 표현된 정서들을 구별하기
영역 Ⅱ 정서에 의한 사고촉진	[수준 1] 정서를 사용하여 중요한 정보에 주의집중 함으로서 사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수준 2] 생생한 정서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관련된 판단이나 기억하기 [수준 3] 정서를 좀 더 효율적이고 세련된 정서와 사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용하기 [수준 4] 정서상태에 따라 다른 문제 해결 접근하기
영역Ⅲ 정서 지식의 활용	[수준 1] 정서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명명하기 [수준 2] 정서가 전달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수준 3] 복잡하고 복합적인 정서를 이해하기 활용하기 [수준 4] 정서의 전황에 대한 변화 양심을 추론하기
영역Ⅳ 정서의 반영적 조절	[수준 1] 정서에 대해 개방적으로 수용하기 [수준 2] 정서의 유익성과 실용성을 반영하여 그 정서를 지속시키거나 그 정서에서 벗어나기 [수준 3] 자신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반영적으로 점검하기 [수준 4] 정서가 전달하는 정보를 축소, 과장, 왜곡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의 대한 정서를 관리 조절하기

29) 이영자 외 『유아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창지사, 서울, 2000) p.17.

따라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 즉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미술교육 현장에서의 학생들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부분은 비중있게 다루어 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육과 미술 프로그램 참여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정서지능과 미술 프로그램

1990년대부터 교육현장에서 사회·정서적인 요인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정서지능 개념과 교육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 할 수 없기에 양쪽 모두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30]. 즉 학문적 능력과 정서지능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교육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정서지능에 관심과 정서지능 신장을 위한 감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정서지능의 정의와 발달경향, 정서지능의 측정도구 개발 연구,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 계발연구,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정서지능과 학업 성취간의 상관 연구 등을 분석하는 다양한 논문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정서지능은 후천적 학습에 의해 발달 될 수 있어 미술교육에 효과적인 교과라는 논리가 성립된다[31].

미술교육과 정서지능 연구의 선행연구에는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김연민, 2010), 미술활동을 통한 유아의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정현경, 2006), 미술교육을 통한 아동의 감성지능 연구(이나겸, 2008) 등이 있다. 교수법 및 교육지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감성증진을 위한 미술교육 방안연구(이은영, 2002), ADHD 청소년의 미술교육과 창의성증진 미술교육프로그램 연구(최현정, 2013)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미술치료와 정서지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로는 집단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정신지체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천수업, 2009), 북아트를 활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김문심, 2008), 집

30) 강문회 외, 『아동을 위한 감성지능 촉진 프로그램』, (시그마프레스, 서울, 2007), p.41.

31) 한윤, “정서지능 발달을 위한 효율적 미술교육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30.

단 미술치료프로그램이 보육시설 청소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하은정, 2007), 자폐아의 인지・정서적 능력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최금란, 2009)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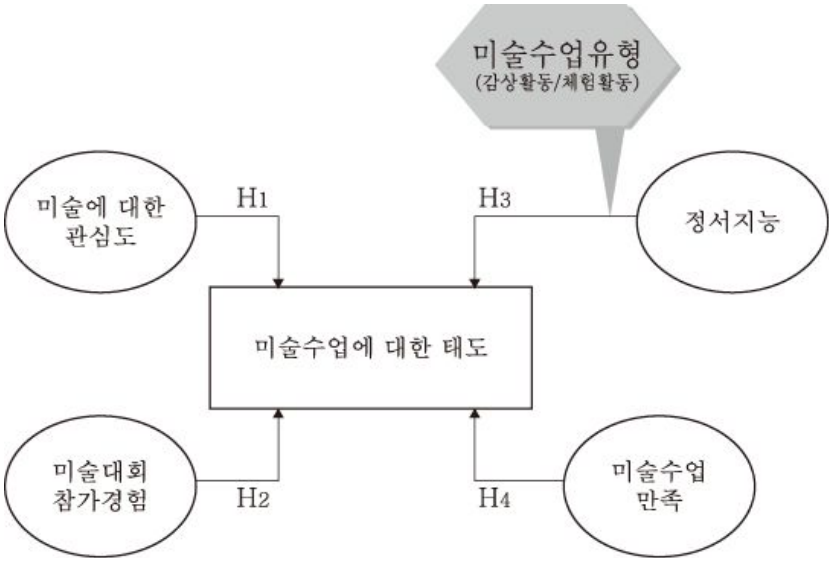
이와 같이 최근에는 미술치료 개념이 등장하면서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서 한 개인이 원만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미술교과와의 연계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1. 연구모형의 설계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인문계와 특성화고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수업에 특성 및 미술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도와 미술대회 참가경험이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후속하여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형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미술수업 유형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이끄는지를 검증하고 아울러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가 만족을 이끄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그림-1> 연구모형

2. 가설의 설정

가설 1: 미술에 대한 관심도는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미술대회에 대한 참가경험은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가 학생의 정서지능(정서인식, 감정이입, 사고추진, 정서활동,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미술활동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이론수업보다 체험활동을 통한 정서지능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는 학생들의 미술수업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는 그 동안 관련 선행연구에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를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써 학생의 연령과 학년, 한 달 평균 용돈은 단일항목으로 자신의 연령과 학년과 문화 활동비를 직접적으로 기입하게 한 후 이를 구간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학교의 형태는 인문계고와 특성화고, 기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2) 미술에 대한 일반적 특성

미술에 대한 일반적 특성으로서 일주일 평균 미술수업시간은 1시간과 2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미술활동 영역 중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감상활동(그림, 도자기, 문화감상 및 시청각을 통한 감상활동 등)과 체험활동(공예, 만들기 위주의 창작활동 등), 기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3) 미술대회 참가경험

미술대회 참가경험은 전혀없음 1점, 5번 이상이 5점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미술관련 대회 수상경험이 있는 정도는 1점 전혀없음, 4점 5회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4) 미술관람 특성

미술 관람에 대한 특성은 일년동안 방문한 횟수, 관람 동반자, 관람동기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방문횟수는 1-2번, 3-4번, 4번 이상, 전혀 없는 정도로 측정하였으며, 관람 동반자는 혼자, 부모님, 선생님, 기타로 측정하였으며, 관람 동기는 학교과제, 부모님 권유, 선생님과 동행, 자발적 흥미, 기타로 측정하였다. 미술관 관람 시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보거나 듣고 감상한 정도의 항목은 그렇지 않다 1점과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미술관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해보고 싶은 분야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 판화, 소묘, 설치, 오브제, 기타로 측정하였다. 실기 표현에 있어서 표현하고 싶은 재료는 종이, 유화물감, 수채물감, 수묵, 연필, 천, 돌, 나무, 철근, 흙, 기타로 측정하였다.

2. 미술수업태도

미술수업태도는 미술수업에 대한 좋은 정도로 정의하고, 미술수업이 매우 좋은 정도, 즐겁고 호감이 가는 정도, 마음에 든 정도, 미술수업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3. 정서지능

정서지능 측정도구는 살보이와 메이어(Mayer와 Salovey)(1997)[32]의 정서지능 최근 모형(4영역 4수순 16요소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1997)이 제작한 청소년 정서지능 검사를 강민수(2002)가 초등학생용 아동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초기모형에서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서지능에 '감정이입'이라는 영역을 부각시켜 5개의 하위영역으로 제작되었으며 각 영역에 맞추어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지능에 대해서 지각하고 있는 바를 피험자 스스로 보고하는 자기보고검사(self-reporttest)로서 크게 5개의 하위영역, 총40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로 평가된다. 5점은 "항상 그렇다",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로 자기보고식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낸다. 강민수[33]의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신뢰도 계수인 크롬바 알파(Cronbach's α=.81)로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4개 차원으로 도출된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인식으로 차원화 하였다.

---

32) Mayer, J. D and Salovey, P.,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Salovey, & D.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cations for Educators. , (New York: Basic Book, 1997).

33) 강민수,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지능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4. 미술수업 만족

미술수업 만족은 미술수업 후의 만족정도로 7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수업과정을 통해 미술에 대한 흥미가 생긴 정도, 미술수업을 통해 성취감 또는 만족감을 느낀 정도, 미술수업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한 정도, 미술교과 수업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재료들을 다룬 정도, 미술수업에 유인물, 사진, 그림, 실물,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가 활동된 정도, 미술교육을 통해 예술성 감수성이 높아진 정도, 미술에 대한 더 잘 알고 싶어진 정도로 측정하였다.

제3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현재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인문계와 특성화고의 고등학생을 대상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사전 학교 선생님과의 약속을 통한 방문으로 수업시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현장에서 직접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여 회수하였으며, 총 230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부수를 제외한 총 20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다양한 통계적 분석기법이 가능함으로써 기초적인 모든 분석 및 기타 분석은 SPSS 10.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및 기술 통계분석으로 데이터 오류를 확인한 후 수정하였으며, 모든 응답항목 전체의 분포를 기초 자료로서 분석하였다. 고등학생의 연령, 미술에 대한 관심도 및 수상경험, 미술체험, 미술수업에 대한 만족, 학생들의 정서지능, 향후 미술분야 진로의사에 대한 전체 구성개념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계수인 크롬바알파(Cronbach′s α)를 통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여러 개의 문항들이 어떠한 요인들로 묶이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여 문항들이 어떻게 묶이는지를 보고, 묶인 요인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뒤 요인의 이름을 정하는 분석방법이

다[34].

또한 구성 개념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변수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상관분석은 서로 관련된다고 예측되는 두 개의 구간·비율 간척도 변수들에 대해 선형적으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분석방법으로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두변수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두 변수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석법으로 상관관계의 정도를 구하는 분석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가설검증을 위한 단순 및 다중 회귀분석(Multi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은 단순히 둘 사이에 상관관계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따라 변수가 하나면 단순회귀 분석의 방법으로 둘이상이면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상관성을 조사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34) 서의훈, “SPSS 통계분석”, (자유아카데미 : 서울, 2008), pp.417-431.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표본의 특성

설문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3>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표본의 연령의 분포는 16세가 8명(4.0%), 다음으로 17세가 147명(73.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18세가 43명(21.5%), 19세가 2명(1.0%)로 나타났다. 학교형태는 특성화고가 110명(55%)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인문계 고등학교가 89명(44.5%), 기타가 1명(0.5%)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분포는 1학년이 149명(74.5%)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2학년이 49명(24.5%), 3학년이 2명(1.0%)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 활동비는 30,000원 이상-50,000원미만이 가장 많은 분포인 81명(41.5%)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0,000원 이하가 68명(34.0%), 50,000원 이상-100,000원미만 28명(14.0%), 100,000원 이상이 23명(11.5%)으로 나타났다.

<표-3>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200명)	비율(100%)
연령	16세	8	4
	17세	147	73.5
	18세	43	21.5
	19세	2	1
학교형태	인문계	89	44.5
	특성화고	110	55
	기타	1	0.5
학년	1학년	149	74.5
	2학년	49	24.5
	3학년	2	1.0
문화 활동비	30,000원이하	68	34.0
	30,000원이상-50,000원미만	81	40.5
	50,000원이상-100,000원미만	28	14.0
	100,000원이상	23	11.5
계		200	100%

2. 표본의 미술 및 미술수업에 대한 일반적 특성

표본의 미술 및 미술수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4>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흥미도는 매우 싫어한다는 응답이 13명(6.5%), 대체로 싫어한다는 응답이 19명(9.5%), 보통이 81명(40.5%), 대체로 좋아한다는 응답이 65명(32.5%), 매우 좋아한다는 응답이 22명(11.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술시간에 대한 재미는 전혀 즐겁지 않다는 응답이 11명(5.5%), 대체로 즐겁지 않다라는 응답이 24명(12.0%), 보통이라는 응답이 83명(42.5%), 대체로 즐겁다는 응답이 60명(30.0%), 매우 즐겁다는 응답이 22명(11.0%)으로 나타났다.

미술에 대한 관심도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응답이 19명(9.5%), 대체로 관심이 없다라는 응답이 27명(13.5%), 보통이 74명(37.0%), 대체로 관심있다는 응답이 59명(29.5%), 매우 관심이 있다라는 응답이 21명(10.5%)으로 나타났다(표-4).

<표-4> 표본의 미술 및 미술수업에 대한 일반적 특성 1

구분		빈도(200명)	비율(100%)
미술 흥미도	매우 싫어함	13	6.5
	대체로 싫어함	19	9.5
	보통	81	40.5
	대체로 좋아함	65	32.5
	매우 좋아함	22	11.0
미술시간에 대한 재미	전혀 즐겁지 않음	11	5.5
	대체로 즐겁지 않음	24	12.0
	보통	83	41.5
	대체로 즐거움	60	30.0
	매우 즐거움	22	11.0
미술에 대한 관심도	전혀 관심이 없음	19	9.5
	대체로 관심 없음	27	13.5
	보통	74	37.0
	대체로 관심 있음	59	29.5
	매우 관심이 있음	21	10.5

일주일 평균 미술수업시간은 1시간이 75명(37.5%), 2시간이 73명(36.5%), 3시간이 31명(15.5%), 4시간이 8명(4.0%), 4시간이상이라는 응답이 13명(6.5%)으로 나타났다. 좋아하는 미술활동은 감상활동이 54명(27.0%), 체험활동이 114명(57.0%). 기타가 32명(16.0%)으로 나타났다. 미술 분야에서 좋아하는 영역은 회화가 22명(11.0%), 조소가 17명(8.5%), 디자인이 55명(27.5%), 공예가 58명(29.0%), 전통회화가 7명(3.5%), 감상이 20명(1.0%), 기타가 19명(9.5%)으로 나타났다(표-5).

<표-5> 표본의 미술 및 미술수업에 대한 일반적 특성 2

구분		빈도(200명)	비율(100%)
일주일 평균 미술수업시간	1시간	75	37.5
	2시간	73	36.5
	3시간	31	15.5
	4시간	8	4.0
	4시간 이상	13	6.5
좋아하는 미술활동	감상활동	54	27.0
	체험활동	114	57.0
	기타	32	16.0
미술분야에서 좋아하는 영역	회화	22	11.0
	조소	17	8.5
	디자인	55	27.5
	공예	58	29.0
	전통회화	7	3.5
	감상	20	10.0
	기타	19	9.5
	무응답	2	1.0

미술활동 형태는 수업시간에만 미술을 접하고 있다는 응답이 123명(61.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학교 미술관련 특성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34명(17.0%)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아리활동이 15명(7.5%), 기타가 28명(14.0%)으로 나타났다.

미술대회 참가횟수는 전혀없다는 응답이 154명(77.0%)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1회에서 3회라는 응답이 27명(13.5%), 4-5회라는 응답이 12명(6.0%), 5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7명(3.5%)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술대회 수상경험에 대한 응답은 전혀없다라는 응답이 134명(67.0%), 1-2회가 27명(13.5%), 4-5회가 21명(10.5%), 5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18명(9.0%)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고등학생의 일반적인 미술수업에 대한 특성은 수업시간을 통해 미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6).

<표-6> 표본의 미술 및 미술수업에 대한 일반적 특성 3

구분		빈도(200명)	비율(100%)
미술활동 형태	수업만	123	61.5
	학교 미술관련 특성화활동	34	17.0
	동아리	15	7.5
	기타	28	14.0
미술대회 참석횟수	전혀 없음	154	77.0
	1회-3회	27	13.5
	4-5회	12	6.0
	5회 이상	7	3.5
미술대회 수상경험	전혀 없음	134	67.0
	1-2회	27	13.5
	4-5회	21	10.5
	5회 이상	18	9.0

3. 표본의 미술관 관람 특성

표본의 미술관 방문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6>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미술관 방문횟수를 분석한 결과 1-2번이 80명(40.0%), 3-4번이 18명(9.0%), 4번 이상이 11명(5.5%), 없음이 84명(42.0%), 무응답이 7명(3.5%)으로 나타났다. 미술관 관람 동반자는 혼자가 26명(130%), 부모님이 34명(17.0%), 선생님이 33명(16.5%), 친구가 64명(32.0%), 기타가 39명(19.5%), 무응답이 4명(2.0%)으로 나타났다.

미술관 관람 동기는 학교과제가 73명(36.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부모님 권유라는 응답이 14명(7.0%), 선생님과 동행이 34명(17.0%), 자발적이라는 응답이 35명(17.5%), 무응답이 1명(0.5%)으로 나타났다(표-7).

<표-7> 표본의 미술관 관람 특성 1

구분		빈도(200명)	비율(100%)
미술관 방문횟수	1-2번	80	40.0
	3-4번	18	9.0
	4번이상	11	5.5
	없음	84	42.0
	무응답	7	3.5
미술관 관람 동반자	혼자	26	13.0
	부모님	34	17.0
	선생님	33	16.5
	친구	64	32.0
	기타	39	19.5
	무응답	4	2.0
미술관 관람 동기	학교과제	73	36.5
	부모님권유	14	7.0
	선생님과 동행	34	17.0
	자발적	43	21.5
	기타	35	17.5
	무응답	1	0.5

미술관 관람 시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보거나 듣는 경험은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33명(16.5%),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45명(22.5%), 보통이라는 응답은 80명(40.0%), 그렇다라는 응답이 33명(16.5%),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7명(3.5%), 무응답이 2명(1.0%)으로 나타났다.

미술관 방문 후 감상문을 써본 경험은 1-2번이 65명(32.5%)로 나타났으며, 3-4번은 22명(11.0%), 그 이상이라는 응답이 25명(12.5%), 전혀없다 라는 응답이 84명(42.0%)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미술관을 방문하고 나서 이를 통한 후기를 남기는 등의 경험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술관 관람소요시간은 10분 이내라는 응답이 42명(21.0%), 30분 이내가 58명(29.0%), 1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54명(27.0%), 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36명(18.0%)으로 나타났다.

<표-8> 표본의 미술관 관람 특성 2

구분		빈도(200명)	비율(100%)
미술관 관람 시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보거나 듣는 경험	매우 그렇지 않음	33	16.5
	그렇지 않음	45	22.5
	보통	80	40.0
	그렇다	33	16.5
	매우 그렇다	7	3.5
	무응답	2	1.0
미술관 방문 후 감상문을 써본 경험	1-2번	65	32.5
	3-4번	22	11.0
	그 이상	25	12.5
	전혀 없음	84	42.0
	무응답	4	2.0
미술관 관람소요시간	10분 이내	42	21.0
	30분 이내	58	29.0
	1시간 이내	54	27.0
	1시간 이상	36	18.0
	무응답	10	5.0

미술관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해보고 싶은 분야에 대한 응답은 한국화가 40명(20.0%)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 학생들의 한국화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소묘와 서양화가 각각 26명(130%)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조소가 20명(10.0%), 판화가 12명(6.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9).

<표-9> 표본의 미술관 관람 특성3

구분		빈도(200명)	비율(100%)
미술관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해보고 싶은 분야	한국화	40	20.0
	서양화	26	13.0
	조소	20	10.0
	판화	12	6.0
	소묘	26	13.0
	설치	15	7.5
	오브제	14	7.0
	기타	42	21.0
	무응답	4	2.5

가장 해보고 싶은 미술주제는 자연이 37명(19.0%)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 자연에 대한 관심과 이를 주제로 한 미술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풍경이 31명으로 15.5%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인물이 30명(15.0%), 정물이 27명(13.5%), 종교 6명(3.0%), 사회와 생활을 주제로 하고 싶다는 응답이 각각 5명(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기 표현에 있어 표현하고 싶은 재료는 연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41명(20.5%), 수채물감이 37명(18.5%), 종이가 32명(16.0%), 유화물감이 22명(11.0%), 철근이 26명(13.0%), 돌이 10명(5.0%)으로 나타났다(표-10).

<표-10> 표본의 미술관 관람 특성4

구분		빈도(200명)	비율(100%)
가장 해보고 싶은 미술주제	인물	30	15.0
	풍경	31	15.5
	정물	27	13.5
	추상	20	10.0
	자연	38	19.0
	종교	6	3.0
	사회	5	2.5
	과학	7	3.5
	생활	5	2.5
	기타	31	15.5
실기 표현에 있어 표현하고 싶은 재료	종이	32	16.0
	유화물감	22	11.0
	수채물감	37	18.5
	수목	13	6.5
	연필	41	20.5
	천	5	2.5
	돌	10	5.0
	나무	12	6.0
	철근	26	13.0
	무응답	2	1.0

제2절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에 앞서 측정항목을 선별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은 이론변수들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각 항목의 신뢰성(reliability),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의 개괄적인 방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요인분석을 측정항목의 사전평가에 사용하고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 이후에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론변수의 다항목 척도간의 신뢰성을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 구성개념들의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1.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의 제시된 모형에서 사용된 구성개념들의 단일차원성과 전체적인 개념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전에 각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항목들에 대하여 항목-전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40이상으로 나타난 항목들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연구대상의 저변에 존재하는 잠재요인을 찾아보거나 자료를 요인으로 축소하여 살펴보는데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목-전체 상관관계 분석을 검토하여 상관관계가 낮고 신뢰도를 상당부분 개선시키는 항목은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출된 차원들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1) 미술에 대한 관심도 및 미술대회 참가경험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미술에 대한 관심도 및 미술대회 참가경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표-11>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미술에 대한 관심도는 흥미도와 재미있고 즐거운 정도, 미술에 대한 관심도의 3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미술대회 참가경험은 미술관련 대회 참석횟수와 수상경험정도의 2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전체 설명 분산 비율은 77.015%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에 대한 설명 분산의 값은 미술에 대한 관심도는 48.854%, 미술대회 참가경험이 28.161%로 나타났다.

<표-11> 미술에 대한 관심도 및 미술대회 참가경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측정항목	미술에 대한 관심도	미술대회 참가경험
미술관심도 1	0.930	-0.084
2	0.890	-0.068
3	0.886	0.103
미술대회 참가경험 1	-0.020	0.834
2	-0.009	0.831
고유치(Eigenvalue)	2.443	1.408
설명분산(%)	48.854	28.161
누적분산(%)	48.854	77.015

2)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 및 정서지능, 미술수업 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 및 정서지능, 미술수업 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표-12>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는 4개 항목인 미술수업이 매주 좋은 정도, 즐겁고 호감이 가는 정도, 마음에 든 정도, 미술수업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도출되었다.

정서지능은 4개 차원인 정서표현, 정서인식, 정서조절, 감정이입의 차원으로 도출되었다. 정서표현은 3개 항목으로 도출되었으며, 감정이입은 3개 항목, 정서조절은 2개 항목, 정서인식도 2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미술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미술수업을 통해 성취감 및 만족감을 느낀 정도, 새로운 경험을 한 정도, 미술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정도의 5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전체 설명 분산 비율은 71.688%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에 대한 설명 분산의 값은 미술 수업태도는 17.279%, 정서지능 중 정서표현은 9.764%, 감정이입은 9.521%, 정서조절은 8.337%, 정서인식은 8.002%로 나타났으며, 미술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18.784%로 나타났다.

<표-12> 정서지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측정항목	미술 수업태도	정서지능				미술 수업 만족도
		정서 표현	감정 이입	정서 조절	정서 인식	
미술수업태도1	0.835	0.195	-0.041	0.050	0.057	0.210
2	0.830	0.117	0.049	0.063	0.018	0.383
3	0.812	0.110	0.144	0.065	-0.041	0.357
4	0.704	0.066	-0.021	0.021	-0.111	0.447
정서표현 1	0.083	0.808	-0.027	0.142	-0.128	-0.025
2	0.090	0.659	0.147	-0.068	-0.144	0.217
3	0.243	0.657	0.258	0.053	0.077	0.172
감정이입 1	-0.146	0.177	0.752	-0.083	0.172	0.211
2	0.082	0.187	0.744	0.277	-0.057	0.068
3	-0.164	0.046	-0.702	0.231	0.315	0.059
정서조절 1	0.208	-0.058	0.112	0.826	-0.093	0.104
2	-0.067	0.165	-0.126	0.817	0.175	0.077
정서인식 1	-0.079	0.024	-0.152	0.008	0.828	-0.076
2	0.096	-0.338	0.096	0.065	0.763	-0.153
미술수업 만족 1	0.284	0.104	0.068	0.130	-0.069	0.819
2	0.376	0.111	0.015	0.058	-0.028	0.768
3	0.100	0.146	0.114	-0.059	-0.067	0.754
4	0.306	0.097	0.053	0.168	-0.077	0.727
5	0.474	-0.005	0.049	0.047	-0.066	0.718
고유치(Eigenvalue)	3.283	1.855	1.809	1.584	1.520	3.569
설명분산(%)	17.279	9.764	9.521	8.338	8.002	18.784
누적분산(%)	17.279	27.043	36.564	44.902	52.904	71.688

3) 전체 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정

모든 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각 변수의 측정항목에 대해 Cronbach's α 계수를 통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13>과 같다.

미술에 대한 관심도는 .885, 미술대회 참가경험은 .652,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는 .910, 정서표현은 .637, 감정이입은 .682, 정서조절은 .623, 정서인식은 .600, 미술수업에 대한 만족은 .776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기준인 0.6을 상회하여 모든 변수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 전체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변수		최종 항목 수	Cronbach's α
미술에 대한 관심도		3	.664
미술대회 참가경험		2	.684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		4	.693
정서지수	정서표현	3	.910
	감정이입	3	.637
	정서조절	2	.682
	정서인식	2	.600
미술수업에 대한 만족		5	.776

2. 전체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표-14>는 전체 구성개념들의 상관관계 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단일 차원성이 입증된 각 연구단위별 척도들에 대하여 서로의 관계가 어떤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변수들 사이 방향성과 관계성에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미술관심도	미술대회참가경험	미술수업태도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인식	미술수업만족도
미술관심도	3.263	0.935	1							
미술대회참가경험	1.533	0.836	-0.037	1						
미술수업태도	3.208	0.998	0.440**	0.207**	1					
정서표현	3.298	0.679	0.202**	0.299**	0.337**	1				
감정이입	3.120	0.499	0.184**	0.121	0.062	0.255**	1			
정서조절	3.205	0.818	0.142	-0.050	0.179	0.141	0.194	1		
정서인식	3.028	0.794	0.118	-0.191	-0.109	-0.256	0.072	0.065	1	
미술수업만족도	3.108	0.941	0.344**	0.194**	0.641**	0.298**	0.101	0.198**	-0.177**	1

** p<.01

제3절 가설의 검증

1. 연구가설의 검증

1) 미술에 대한 관심도 및 미술대회 참가경험이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H1-H2)

미술에 대한 관심도 및 미술대회 참가경험이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15>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미술에 대한 관심도(β=.478, t=7.220, p<.001) 및 미술대회 참가경험(β=.267, t=3.608, p<.001)은 미술수업태도에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1과 가설2는 지지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미술에 대해 관심이 클수록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미술대회 참가경험도 미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미술수업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미술에 대한 관심도 및 미술대회 참가경험이 미술수업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학생의 미술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 학생들의 관심도를 유발하는 것이 미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더 높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도를 유발 할 수 있는 다양한 감상활동과 체험활동을 도입하여 자주 접하게 함으로써 관심을 이끄는 등의 프로그램 도입이 요구된다.

<표-15> 미술에 대한 관심도 및 미술대회 참가경험이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독립변수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	
	표준화된 β값	t값
미술에 대한 관심도	.478	7.220***
미술대회 참가경험	.267	3.608***
R2 Adj.R2	.243 .236	

*** p<.001

2) 미술에 대한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수업유형에 따른 차이(H3)

미술에 대한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수업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업유형인 감상수업과 체험수업으로 분류한 자료를 구분하여 미술수업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수업유형의 조절적 영향을 검증한 결과 <표-16 >과 <표-17>과 같이 나타났다.

(1) 미술수업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감상활동 분석

미술에 대한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수업유형인 감상수업의 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분석은 다음<표-16>과 같다.

미술수업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감상활동의 회귀분석 결과,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는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에만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16> 미술수업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감상활동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독립변수	정서지능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인식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	.388 (4.570)	.032 (.350)	.310 (3.546)***	.003 (.005)
R2 Adj.R2	.150 .143	.001 -.007	.096 .089	.003 .001

1. *** p<.001 2. 괄호안은 표준화된 β값, 괄호 밖은 t값

(2) 미술수업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체험활동 분석

체험활동에 있어 미술수업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표-17>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미술에 대한 수업태도는 정서표현에만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감상활동과 영향의 차이를 나타냈다.

<표-17> 미술수업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체험활동의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 독립변수	정서지능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인식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	.285 (2.525)**	.057 (1.103)	.008 (-.066)	.101 (-.108)
R2 Adj.R2	.081 .069	.017 .003	.000 -.014	.012 .009

1. ** p<.01

2. 괄호 안은 표준화된 β값, 괄호 밖은 t값

(3) 수업유형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분석

감상수업과 체험수업의 수업유형의 차이가 정서지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18>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정서표현에 있어서는 감상수업이 3.256±03611, 체험학습이 3.329±0.765로 나타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정이입 부분에서는 감상수업이 3.147±0.496, 체험학습이 3.090±0.501, 정서인식에 대해서는 감상수업이 2.996±0.712, 체험학습이 3.122±0.887로 나타나 수업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조절에서는 감상수업이 3.358±0.823, 체험학습 2.973±0.776으로 나타나 수업유형의 차이를 나타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심봉경(2011)의 연구에 의하면 표현기법 미술활동 수업의 경험유무가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 유형에 따라 정서지능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남에 따라 수업유형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정서부분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18> 수업유형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분석 결과

구분	활동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도
정서표현	감상수업	120	3.256	0.611	-0.736	0.463
	체험수업	74	3.329	0.765		
감정이입	감상수업	120	3.147	0.496	0.777	0.438
	체험수업	74	3.090	0.501		
정서조절	감상수업	120	3.358	0.823	3.237	0.001**
	체험수업	74	2.973	0.776		
정서인식	감상수업	120	2.996	0.712	-1.087	0.278
	체험수업	74	3.122	0.887		

** p<.01

3) 미술 수업에 대한 태도가 미술수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H4)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가 미술수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19>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미술에 대한 태도는 미술수업에 대한 만족(β=.604, t=11.740, p<.001) 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어 가설4는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처럼 미술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미술수업태도는 호의적이라는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미술수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무엇보다도 미술수업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9> 미술에 대한 태도가 미술수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 독립변수	미술수업에 만족	
	표준화된 β값	t값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	.604	11.740***
R2 Adj.R2	.410 .417	

*** p<.001

<표-20> 연구가설의 종합

구 분	가 설	채택 여부
가설 1	미술에 대한 관심도는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	미술대회에 대한 참가경험은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3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가 학생의 정서지능(정서인식, 감정이입, 사고추진, 정서활동,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미술활동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이론수업보다 체험활동을 통한 정서지능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부분적 지지
가설 4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는 학생들의 미술수업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제5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수업에 특성 및 미술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도와 미술대회 참가경험이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후속하여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형성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미술수업 유형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이끄는지를 검증하고 아울러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가 만족을 이끄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표본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은 17세가 147명(73.5%), 한 달 문화 활동비는 30,000원이상 ~ 50,000원미만이 가장 많은 분포인 81명(4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표본의 미술 및 미술 수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흥미가 보통이 81(40.5%), 미술 수업시간의 재미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83명(42.5%), 미술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이 74명(37.0%)로 나타났다. 또한 미술수업의 평균 수업시간은 1시간이 75명(37.5%), 좋아하는 미술활동은 체험활동이 114명(57.0%), 미술 분야에서 좋아하는 영역은 디자인이 55명(27.5%), 미술활동 형태는 수업시간에만 미술을 접하고 있다는 응답이 123명(61.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나 고등학생들의 일반적 미술수업은 수업 참여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미술관 방문에 대한 특성은 미술관 방문횟수를 분석한 결과 1-2번이 80명(40.0%), 미술관 관람 동반자는 친구가 64명(32.0%), 미술관 관람 동기는 학교과제가 73명(36.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미술관 관람 시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보거나 듣는 경험은 보통이라는 응답은 80명(4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술관 관람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해보고 싶은 분야에 대한 응답은 한국화가 40명(20.0%), 가장 해보고 싶은 미술주제는 자연이 37명(19.0%), 실기 표현

에 있어 표현하고 싶은 재료는 연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41명(20.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설 검증에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에 대한 관심도 및 미술대회 참가경험이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미술에 대한 관심도(β=.478, t=7.220, p<.001) 및 미술대회 참가경험(β=.267, t=3.608, p<.001)은 미술수업태도에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술수업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감상활동의 미술수업에 대한 태도는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에만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험활동에 있어 미술수업태도가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미술에 대한 수업태도는 정서표현에만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감상활동과 영향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정서지능의 수업 유형의 차이는 정서조절에서만 수업유형의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미술에 대한 태도가 미술수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미술에 대한 태도는 미술수업에 대한 만족(β=.604, t=11.740, p<.001) 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술수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유발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다양한 감상활동,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도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서지능은 수업 유형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수업의 다양성이 요구되며, 미술수업의 만족은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첫째, 대상과 지역이 고등학생과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둘째, 미술관심도의 저/고 집단에 따른 영향관계를 검증하지 않아 정서지능 및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저/고집단의 따른 영향관계를 검증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단행본

김은영, 『박물관 체험향상을 위한 해석지능의 확장』, (한국조형교육학회, 1991), pp. 185-188.

강문회・정옥환・김승경, 『아동을 위한 감성지능 촉진 프로그램』, (시그마프레스, 서울, 2007), p.41.

문용린,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서울 :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 연구소, 1997.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서울 : 살림, 2003), p.7.

이영자・이종숙・신은수・양승희・안경숙・유윤영・연선영, 『유아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창지사, 서울, 2000) p.17.

Liebert, U., 『독일에서의 뮤지엄 교육현황』, 한국조형교육학회, 1992.

Salvory, p. & Mayer, j.d.. 『*The Positive psychlogy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snyder, C.R. & Lopez, S. J.(Eds),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학위논문

강민수,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지능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곽윤정,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p. 21-23.

곽이랑, "다중지능, 정서지능 및 학문적 자아개념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p.17-20.

김소연, " Vitor Lowenfelf의 창의적 미술교육연구: 한국 미술교육과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2-34. 2009.

김연민,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5.

나우누리, “감성지능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p. 12-13.

백중열, “초등미술교육에 있어서 감상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11(1), 1991) pp.147-168.

서의훈, “SPSS 통계분석”, (자유아카데미 : 서울, 2008), pp.417-431.

서장원,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초등체육에의 통합적 접근 : 서사적 관점에 근거한 하나로 수업적용”,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pp.11-12.

손혜원, “미술수업에서 맥락주의적 접근 방법을 통한 사회문화 현상이해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 4-5.

심봉경, “미술교육의 표현기법을 통한 정서지능 효과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원 논문, 2011), pp.6-7.

심진관, “공교육과 사교육에서의 미술교육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 3-5

안미숙,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오수연(2002), 미술의 이해에 기초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워석사학위논문, pp. 7-10.

이문경, “ICT를 활용한 미술 감상 수업이 예술계 고등학생들의 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2.

이소정, “창의력 향상을 위한 한국화의 활용방안 연구: 미술영역 내 통합수업중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1-3.

이은혜, “중등학교 미술교육의 새방향 모색: 미술개념의 확장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4-5.

정강윤, “무용교육 경험이 감성지능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5-6.

조성은, “DBAE이론에 기초한 미술수업이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p.1-2.

조은영, “미술관교육과 학교미술수업 연계방법에 관한 연구” ,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1-3.

최재은, “인간의 감정에 관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p. 4-5.

최희, “미술관과 학교미술교육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 7-8.

한윤, “정서지능 발달을 위한 효율적 미술교육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30.

황연정,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미술감상 교육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p.2-3.

A. Peterson, Robert. “*A Meta-Analysis of Cronbach's Coefficient Alpha.*” ,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22, 1995), pp91-381.

Gardener, H.,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 (N.Y: basic Books, 이경희(역), 마음의 틀, 서울 : 문음사, 1983)

Mayer, J. D and Salovey, P.,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Salovey, & D. Slu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cations for Educators. , (New York: Basic Book, 1997).

〔부록〕

고등학생의 미술관심도 및 미술수업 태도가 정서지능 및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에 응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로 **미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제공해 주시는 응답은 오직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통계로 일괄 처리 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이 답하여 주신 모든 내용은 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느끼신 그대로 해당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연구자 모 상 희

설문 응답 시 주의사항

▶ 설문지에 제시된 지시사항을 잘 읽고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질문 항목에는 옳고 그른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솔직한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 다시 한 번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학생들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학생의 연령은?　　세

2. 귀하의 학교의 형태는?

① 인문계 ② 특성화고 ③ 기타

3. 귀하의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 월 문화활동비는 얼마 ?

■ 다음은 미술과 관련된 설문문항입니다. 해당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미술 **흥미도**는?

①전혀 싫어함 ② 싫어함 ③ 보통임 ④좋아함 ⑤아주 좋아함

2. **미술시간이 재미있고 즐겁나**요?

① 전혀 즐겁지 않다. ②즐겁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즐겁다. ⑤매우 즐겁다

3. 미술에 대한 **관심도는?**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관심 없다. ③보통이다. ④관심이 있다. ⑤매우 관심이 있다.

4. 일주일에 **미술수업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①1시간 ②2시간 ③3시간 ④ 4시간 ⑤4시간 이상

5. 미술활동 영역 중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① 감상활동(그림, 도자기, 문화감상 및 시청각을 통한 감상활동)

② 체험활동(공예, 만들기 위주의 창작 활동)

③ 기타

6. 미술활동 영역 중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① 회화 ② 조소 ③ 디자인 ④ 공예 ⑤ 전통회화 ⑥ 감상 ⑦ 기타

7. 현재 미술관련 활동의 형태는 ?

① 수업만 ② 학교 미술관련 특성화 활동 ③동아리 활동 ④기타

8. 최근 1년 동안 **미술관련 대회에 참석한 횟수**는 ?

① 전혀 없다. ② 1회-3회 ③4-5회 ④ 5번 이상

9. 미술관련 대회 **수상경험**이 있나요?

①전혀 없다. ② 1-2회 ③3-4회 ④5회 이상

■ 다음은 미술관 관람 실태에 대한 조사입니다. 해당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일년동안 **미술관을 몇 회 방문**했나요?

① 1-2번 ② 3-4번 ③4번 이상 ④없다.

2. 미술관 관람은 **누구와 함께 관람**합니까?

①혼자 ②부모님 ③ 선생님 ④ 친구 ⑤기타

3. 미술관을 **관람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학교과제 ②부모님 권유 ③ 선생님과 동행 ④ 자발적 흥미 ⑤기타

5. 미술관을 관람 시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보거나 듣고 감상을 하십니까?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6. 미술관을 방문하고 나서 **감상문을** 써 본적이 있습니까?

①1-2번 ②3-4번 ③ 그 이상 ④ 전혀없다.

7. 미술관 **관람하는데 소요시간**은?

①10분이내 ②30분 이내 ③1시간이내 ④ 1시간 이상

8. 미술관 관람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장 해보고 싶은 분야**는 ?

①한국화 ②서양화 ③조소 ④판화 ⑤소묘 ⑥설치 ⑦오브제 ⑧기타

9. 전시관 관람 후 감상 방법 중 표현화동을 통해 가장 **제작해 보고 싶은 미술 주제**는 ?

①인물 ②풍경 ③정물 ④추상 ⑤자연 ⑥종교 ⑦사회 ⑧과학 ⑨ 생활 ⑩기타

10. 실기 표현에 있어서 표현하고 **싶은 재료는** ?

① 종이 ②유화물감 ③수채물감 ④수묵 ⑤연필 ⑥천 ⑦돌 ⑧나무 ⑨철근 ⑨흙 ⑩기타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앞으로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대학 진학 시 미술을 전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미술과 담을 쌓은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신문의 미술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히 읽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TV에서 미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미술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미술관 그림을 감상하면 해설자가 필요 없을 만큼 내용을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유명한 화가, 조각가 등을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내용도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양한 미술 체험활동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 미술 수업태도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미술수업이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미술수업이 즐겁고 호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미술수업이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미술수업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 미술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업과정을 통해 미술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2	미술수업을 통하여 성취감 또는 만족감을 느꼈다.					
3	미술 수업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한다.					
4	미술교과 수업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재료들을 다룬다.					
5	미술수업에 유인물, 사진, 그림,실물,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가 활동된다.					
6	미술교육을 통해 예술성 감수성이 높아졌다.					
7	미술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졌다.					

■ 다음에 해당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알아차린다.					
2	나는 내 친구에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내 기분도 언짢고 속상하다.					
3	나는 일이나 행동을 선택할 때 이후에 일어날 상황과 느낄 감정을 생각해 보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5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잘 조절하는 편이다.					
6	나는 그림이나 음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을 잘 조절하는 편이다.					
7	나는 따돌림을 받거나 외톨이로 지내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다.					
8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기 위해 감정을 잘 조절하는 편이다.					
9	나는 경외심이나 두려움이 복잡한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친하지 않는 사람의 감정도 잘 파악하는 편이다.					
11	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 일이 잊혀지지않고 계속해서 떠오르곤 한다.					
12	나는 내 친구가 칭찬을 받고 좋아하면 덩달아 기분이 좋다.					
13	나는 꼭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그 일에 흥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4	나는 감정이나 기분이 때로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나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표현하는 편이다.					
16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 표현이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17	나는 거지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고 안쓰럽다.					
18	나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을 하기 위해 당자아 하고 싶은 일을 참는 편이다.					
19	나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감정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					
20	나는 불쾌한 기분이 들면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가 있다.					
21	나는 나의 감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편이다.					
22	나는 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즐거워 하는 것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다.					
23	나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는 편이다.					
24	나는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5	나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다투면 화가 풀리지 않는다.					
26	나는 감정이나 기분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표현하는 편이다.					
27	나는 내 친구가 성적이 올라서 좋아하면 축하해 주고 싶다.					
28	나는 감정 상태에 따라 내 능력의 발휘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9	나는 짜증과 분노의 감정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0	나는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기면 다른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잊으려고 노력한다.					
31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잘 모르는 편이다.					
32	나는 거지를 보면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기보다 지저분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끼게 된다.					
33	나는 즐거운 기분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잘 해결해본 경험이 있다.					
34	나는 분노라는 감정에도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안다.					
35	나는 우울하거나 슬퍼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한 적이 있다.					
36	나는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갖거나 좋아해도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편이다.					
37	나는 왕따 당하는 아이를 보면 바보같아 보이고 나도 상대하기 싫어진다.					
38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예전에 유사한 상황에서 내감정이 어땠었는지를 생각해 보곤 한다.					
39	나는 분노라는 감정도 상황에 따라 다른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40	나는 내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는 편이다.					